

# 조선후기 영남지방 士族村의 풍수담론\*

최 원 석\*\*

## The Fengshui Discourse on the Sajok Vill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Youngnam Region\*

Choi, Won Suk\*\*

**요약** : 조선 후기에 풍수설은 사족촌의 형성 과정에서 종족 터전의 번영과 인물 번성이라는 유교적 담론으로 통용되어 사족층의 정치·사회·경제적 세력화를 위한 향촌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사족층의 향촌사회 세력화와 지배를 위한 풍수적 방식은, 입지 국면의 설정을 통한 상징화, 종족 상징 경관의 풍수적 배치를 통한 장소적 권위 확보, 풍수비보물의 관리를 통한 통제, 墳山 확보를 통한 산림의 사유화 등이 있었다.

**주요어** : 사족촌, 사족, 영남지방, 조선 후기, 풍수, 풍수담론

**Abstract** : The fengshui discourse of Sajok village in the late Joseon dynasty obtained currency as the prosperity of settlement place and public figures, was used for ideology ruling the rural community and society. The ways of the fengshui for ruling clan community were that having authority by means of symbolizing settlement location and siting main clan's symbol architectures, controlling the village community by the agreement keeping the fengshui's supplements, occupying the clan's ownership by expanding clan's tomb area.

**Key Words** : Sajok-village, Sajok, Youngnam, the late Joseon dynasty, fengshui, fengshui-discourse.

### 1. 머리말

한국의 전통촌락에 미친 풍수적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촌락풍수는 지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과거의 연구 경향은 주로 동족촌을 대상으로 개별 단위 촌락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풍수이론 체계를 적용하고 설명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 전통취락의 풍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의 지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수를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담론적 구성물로 해석한 연구성과물(권선정, 2003·2008)<sup>1)</sup>이 나왔고, 조선시대의 촌락풍수를, 사회적 기능의 체계 내에서 당시의 사회관계가 투영된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기봉, 2008, 285-287)는 언급도 촌락풍수에 관한 역사적인 접근에 지침이 되는 지적으로 평가된다. 전통취락의 林藪 경관에 관해서도 풍수담론과 유교 이데올로기의 측

면에서 해석적으로 접근한 새로운 시도(김덕현, 2009, 51-70)가 있었는데, 촌락풍수를 공동체의 융성이라는 풍수담론의 틀로 해석한 것은 주목할 성과라고 평가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근래의 연구들은 전통촌락의 풍수문화를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접근·이해하고 해석한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글은 근래의 촌락풍수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접근·해석 방법에 기초하여 조선 후기 士族村<sup>2)</sup>의 풍수담론에 관해서 영남지방을 지역범위로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언급될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 풍수설은 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되기도 했지만 취락과 관련된 풍수는 종족터전의 번영과 인물의 번성이라는 유교적 담론으로 통용·이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족들에게 받아들여져 촌락지와 墳山의 입지선정, 종족의 사회적 지위 강화, 향촌 지배의 수단 등으로 활용되었다. 풍수는 사족들에 의해 정치·경제

\* 이 글은 2009년 9월 26일에 금오공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久庵 金就文과 善山金氏의 宗族활동) 발표문(2010년 4월에 형설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에서는 "조선후기 사족촌의 풍수담론과 들성의 풍수"라는 제목으로 게재됨)과, 『慶南文化研究』 30호(2009.12)에 발표한 '경남의 풍수' 중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H.K. Research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wschoe@empal.com)

· 사회적 세력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면서,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에서 풍수담론의 영향력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 전통촌락의 입지 선택과 경관의 형성 과정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많은 배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중에 한 요인으로서 풍수는 전통촌락의 입지와 발생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부분의 전통 촌락에 풍수가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한 견해는, 마치 조선시대 읍치의 풍수적 입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읍치에는 풍수지리라는 전통적 공간원리에 의한 원형적인 입지패턴을 갖고 있었다.’라는 식의 超歷史的인 선입관이 일반화되어 통용되었던 것과 같은 실정이기도 하다.<sup>3)</sup> 조선시대 촌락의 발생·전개와 맞물리면서 전개된 촌락풍수는 역사적 조건과 맥락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의 취락 중에서 읍치와 반촌 등을 제외한 수많은 민촌과 기능적 촌락은 형성 과정에서 풍수가 입지 및 경관 조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거나 간접적인 영향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촌락들에 있어 풍수는 후발적인 해석의 경험(예컨대 풍수적 의미·풍수지명의 부여나 비보물의 조성 등)만 있을 뿐이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풍수 지식의 습득과 운용은 왕권과 지배계층의 專有物이었다. 촌락의 입지와 경관 조영에 풍수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재지 세력들의 촌락 형성기와 때를 같이하며 본격적인 촌락의 풍수 입지와 풍수담론 형성은 조선 후기 사족촌의 형성기에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족층들이 풍수를 그들 근거지 취락의 입지 선정과 경관 조영에 활용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촌락의 풍수적 입지로 얻을 자연환경적인 이익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향촌사회에서 풍수적 가치는 종족터전의 번영과 인재의 번성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에 있어 전문적 풍수지식은 상위 사회계층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급적 속성의 고급정보였고, 이에 대한 접근과 운용은 향촌사회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갖춘 사회집단만이 가능했기 때문이

었다. 사족촌의 입지경관에 대한 풍수적인 가치 평가의 수준과 풍수담론의 영향력은 향촌에서 사족들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지위 및 지배력과 비례하며, 풍수는 사족들의 근거지로서 사족촌의 장소적 정체성과 권위를 강화시키고 종족의 번성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해주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기능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사족촌의 풍수담론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족층들의 풍수적 이데올로기 활용을 통한 향촌사회의 영향력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족들의 경제력이나 사회정치력이 성장하면서 수반되는 사족촌의 확대와 분과, 촌락 이동 등의 과정에서 풍수적 입지 지향성과 담론 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의 반증이라고 하겠다.

사회집단은 장소 입지와 경관 구성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며, 그것을 일컬어 문화지리학에서는 장소의 정치 혹은 경관의 정치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문화경관을 창출하는 사회적 因子로서의 사회집단이 어떻게 입지와 경관 담론을 통해서 장소의 권위를 의미화, 상징화하였는지는 사족촌의 풍수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된다. 촌락의 입지와 입향조 혹은 宗宅의 배치, 그리고 촌락의 공간 구조와 경관 구성, 지명과 설화의 구성을 통한 담론의 형성 등도 이러한 장소의 정치라는 견지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적인 사회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장소의 권위가 더욱 위계화된 형태로 경관에 표현되며 상징적 이미지가 부가된다. 취락의 풍수적 입지 역시 사회정치적인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소의 선택과 그 의미는 비단 풍수적 입지가 갖는 자연적 입지환경의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명당 길지로서의 사회적 우위성과 차별성이 사회집단에 위계적으로 인지되고 신분에 맞춰 계급적, 계층적으로 점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족, 양반, 서민 등이 차지하는 장소에는 신분에 상응한 풍수적 가치의 차별성과 위계성이 풍수담론의 형태로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듯 조선 후기 사족촌의 형성과 관련된 풍수담론은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구성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개별 단위의 마을 지형에 대한 풍수이론체계의 적용과 주민들의 풍수적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 방식과는 달리, 촌락형성 주제

로서의 사회집단이 풍수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풍수는 어떻게 향촌사회의 의미의 관계망 속에서 기능하였는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전통촌락에 미친 풍수적 영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분야에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사족촌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풍수담론의 속성 및 기능에 관하여 고찰한 역사·사회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에 관한 역사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에 보태어, 풍수도 사족층이 향촌사회의 지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이데올로기로써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도 연구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사족촌의 풍수담론 형성 과정과 그 배경

조선 후기 사족촌의 풍수담론은 풍수사회사적 담론의 맥락에서 우선 그 위상을 자리매김해 볼 수 있다. 풍수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어 신라시대에 왕권 세력과 귀족층, 관료 지식인들에 의해 독점되어 왕권 강화를 위한 왕릉의 造營 등에 쓰였다. 신라 下代에 선불교가 중국에서부터 전래하자 유학한 선승들에 의하여 풍수는 사찰지 선정에 활용되었고, 풍수지식은 선종을 후원하는 주요 지방 호족들에게 확산하여 해당 근거지의 장소적 권위 강화와 공간적 구성 원리로서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 때 풍수담론은 불교와 결합하여 禪補寺塔說이라는 왕조의 국토 경영 이데올로기로 흥성하였으며,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왕업 연장을 위한 地理延基說의 담론으로 異宮 혹은 別宮의 조영과 遷都 과정을 주도하였다. 조선시대에 풍수담론은 도읍과 왕궁의 조영, 왕릉 입지 선정, 지방 읍치의 입지와 배치 등 중앙집권적인 공간 이데올로기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 중후기에는 재지사족들에 의한 촌락의 형성과 세력화 과정에 활용되어 사족층에 의해 촌락풍수의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유교적 효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맞물려 묘지풍수의 담론은 일반 서민층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실천되었다(최원석, 2009, 59).

그런데 조선초기까지만 하여도 풍수서들을 민가에서 소지하거나 私藏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국

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는 종종 민가에 私藏한 秘記書들을 회수하여 불살랐으니(이상태, 1987, 215) 일반인들의 풍수지식에 대한 접근과 운용에는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풍수이론의 지식체계가 난해했기 때문에 당시 민간층에서 제대로 풍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풍수의 인간관이 지닌 改天命 사상은, 하늘이 정한 운명에 규정되는 順天의인 이데올로기적 사상성에서 탈피하여 도리어 ‘신의 공력을 빼앗고 천명을 개척할 수 있다(奪神工開天命)’라는 변혁적 사상성을 가진 것으로서 계급과 신분질서의 改變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로써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기에, 더더욱 지배층은 피지배 민간계층에게 풍수지식의 개방을 허용하거나 풍수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서민들의 풍수 활용을 통한 민촌의 입지와 경관 조영에 대한 풍수적 영향력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에 이르자 지리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풍수 역시 관료와 지식인 계층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사족층의 사회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향촌사회에 세력의 근거지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풍수는 유교적 세계관의 틀 내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변용되어 사족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촌락 단위에서 풍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은, 사족들이 동족촌이라는 공간적 근거지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중소지주 계층의 기반을 확보하여 향촌에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행사하였던 조선 후기의 역사적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르자면, 17세기부터 성리학적 유교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고 嫡長子 우위의 상속과 奉祀가 일반화되었기에, 동족촌의 풍수담론이 성행한 시기도 이 무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혈연 의식을 중시하는 同氣理論의 사회적 정착과 이에 따른 동족 간 묘지풍수의 중시와 성행, 그리고 풍수적 가치가 종족의 번영과 인물의 번성을 보장한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분위기 등은 士族村에 풍수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배경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촌락풍수는 신분제 사회라는 사회적

기능의 체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조선시대의 풍수담론은 기본적으로 취락 사이의 장소적 위계와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전통사회의 신분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배 신분은 촌락이나 묘지 입지에 관한 풍수적 명당성의 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신분제적 틀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했다(이기봉, 2008, 285-287). 조선시대의 풍수적 장소는 왕족-양반-민간과 같은 사회적 신분의 위계에 따라 서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점유되었다. 왕도와 陵地는 首位의 명당지로서 가치 평가되어 왕족에 의해 배타적으로 독점되었으며, 지방읍치의 풍수적 요치는 관료세력과 향반들에 의해 점유되었고, 읍치 외곽에 풍수가 양호한 주요 촌락지와 묘지는 사족층과 같은 지역사회 권력층의 근거지로 장소화되었다. 이러한 풍수적 길지를 둘러싼 장소의 정치는, 정치세력과 사회집단 간에 장소성의 지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힘 싸움에서 경쟁, 도전, 쟁탈, 강점 혹은 移讓 등의 형태로 나타나곤 하였다. 조선 후기에 사족촌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후술하겠지만 사족촌 내 지파간의 세력 경쟁이 발생할 때에도 풍수입지의 가치 평가에 있어 상호 경쟁의 양상이 드러난다. 三南의 4대 吉地로서 영남지방의 하회·양동·유곡·천전이 꼽혔다는 사실도<sup>4)</sup>, 근거지의 차별적인 풍수 평가를 통해 유력한 사족들의 장소의 정치를 통한 사회적 담론이 의도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특히 실학자들은 풍수설의 사상적 이단성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朱子의 풍수적 견해를 준거로 한 權道的인 가치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풍수지식에도 의약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일반교양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이화, 2005, 153-175). 경상우도 유학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던 南冥 曹植(1501~1572)은 “陰陽, 地理, 醫藥, 道流의 말에까지 그 대강을 섭렵하지 않음이 없었다.”<sup>5)</sup>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풍수를 일컫는 것이고, 그 제자이자 경상도의 여러 邑誌를 찬술하였던 寒岡 鄭述(1543~1620)은 “제자 백가, 의약, 점서, 병서, 풍수설 등에 이르기까지 그 대략의 이치를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sup>6)</sup>고 평가되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풍수설은 『朱

子家禮』를 준거로 수용되었는데, 『朱子家禮』에서는 조상과 자손이 同氣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택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실제적인 택지 과정에서 풍수설과의 결합을 인정하면서 조선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김경숙, 2002, 67). 향촌사회의 유학자들은 근거지 취락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풍수적 담론을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有力한 견해는 고을이나 촌락의 풍수적 조영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경북 선산에서는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이 邑基의 물난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천 변에 수해방비림을 식재하였다거나, 인접한 玉山縣(인동)에서는 旅軒 張顯光(1534~1637)이 읍기의 풍수적 보안을 위해 비보숲을 조성·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향촌사회에 있어 유학자들의 풍수에 대한 태도와 담론의 수용 양상을 반증해 준다. 아래의 두 인용문은 당시 영남지방 유학자들의 풍수적 인식과 실천적 정황을 단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지수는 읍 앞들에 있다. 점필재 김종직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감천의 물난리를 막고자 하였다. 300여 년 동안 천여 섬의 이익을 입었다.<sup>7)</sup>

육산현은 천성산을 등지고 금오산을 마주 대하였으며 낙동강이 띠처럼 두르고 있으니, 읍성을 만들고 현을 설치함에 진실로 풍수의 모임을 얻었다. 다만, 앞 들이 넓고 멀어서 풍기를 갈무리함이 허술한 듯하다. 이 때문에 고을에서는 반드시 5리쯤 되는 곳에 숲을 설치하여 강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모이게 하였다. 이 숲의 이름을 遮라고 불렀고 조성한 지 오래되었다. 풍수설은 識者의 길이 아니지만 무릇, 한 풀과 한 나무의 영고성쇠도 地運에 관계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숲이 중간에 폐지된 것은 이 고을의 운이 바야흐로 쇠할 조짐이었음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중흥을 돕는 방도가 이 숲을 세우는 것이니 하나의 길조가 되지 않겠는가. 옛날 이 고을은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 입수(遮蔽)도 무성했다. 그런데 인물이 쇠잔해지고 고을이 패망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이 입수도 베어지고 말았다. 우리 선조가 함께

이 숲을 만들었을 때에는 왕성하였으니, 그 자손 되는 우리도 함께 이 숲을 키워 고을을 다시 빛냄이 오늘 우리의 희망하는 바가 아니겠는가?8)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 사족촌의 풍수담론은 촌락 형성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배경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촌락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조선 전기의 自然村·散村에서 15~16세기의 集村化 과정, 16~17세기의 사족촌 형성, 18세기 이후 촌락의 조직과 운영체계가 분화하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해준, 1993, 280). 대체로 15세기 초까지는 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재지세력이 각기 읍치 내에 세거해 왔으나 그 이후부터 향리에서 벗어나 사족화하면서 域外 鄕村 또는 그 任內 지역 혹은 타읍의 외곽지대로 이주하거나 卜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에 따라 그곳들이 나중에 우수한 재지사족의 집거지가 되는 동시에 그 주위의 오지·벽지가 잇따라 개발되어 갔다.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주민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盛村이 殘村이 되기도 하였고, 재지사족들의 활발한 지역 개발과 새 卜居로 말미암아 新生村도 대량 발생하였다. 그 결과 중앙의 기성 사족과 지방의 재지세력 사이에 지역적인 이동이 활발하면서 사족의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왔다(이수건 등, 1994, 70-71). 그리고 양반지배체제의 확립에 따라 在地土族들은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성촌을 형성시켜 나갔다. 여말선초의 전환기에 사족들은 妻鄕이나 外鄕 등 연고지를 따라, 혹은 향, 소, 부곡 등 행정편제상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16세기에 異姓雜居의 동족촌이었던 사족촌은 17세기 이후 친족결합의 양상이 구체화되면서 점차 동성동본의 동성촌으로 일반화되어 변모해 갔으며(정진영, 1995, 339), 18세기 후반에는 동족촌의 형성이 일반화되면서 동족촌 조직의 결속력과 폐쇄성은 마을 내에서의 동족과 비동족간, 혹은 동족간, 마을과 마을 간의 차별성과 주도권 문제로 나타났다(이해준, 1993, 281).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종래의 동족촌에서

동성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산송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수반되었으며, 씨족과 문중을 중심으로 치열한 鄕戰이 야기되었다.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각기 주도권 장악을 위해 경쟁하였고 이러한 분열과 鄕戰은 17세기보다는 18세기, 다시 19세기로 올수록 더해 갔으며 특히 19세기부터는 향촌사회에 있어서 씨족·문중끼리의 분쟁은 추잡상을 더하였다(이수건, 1995, 440-444). 이렇듯 사족촌 형성 과정의 사회적 성격과 맞물린 사족 간, 혹은 지파 간의 주도권 경쟁은 향촌 지배를 위한 풍수담론의 형성과 실천에 큰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 요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 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된 담론의 형성은 당시의 경제적인 농업 생산력과 농경 조건을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족촌의 이상적인 입지형태는 풍수적 명당의 지형 지세 조건과 맞을 수 있었다. 당시의 농업생산력의 수준에 기초할 때 지형적으로 사족촌의 최적 입지 조건은 농지와 山脈·하천·계곡이 서로 교착하여 堤堰과 川防(狀) 등 관개시설 축조에 편리한 곳이었으며(이수건, 1995, 68), 이러한 지형 조건은 풍수상의 명당 조건과 맞았기에 풍수적 입지론은 사족촌의 최적 입지를 뒷받침해주는 공간논리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에 의해서 저술된 『擇里志』, 『山林經濟』 등에서 풍수입지론을 골자로 수용한 卜居의 논리 체계가 사족층 사회집단의 촌락 입지관에 널리 수용되어 영향을 끼쳤으며, 『擇里志』에서 溪居를 가장 이상적인 可居地 촌락의 입지 형태로 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사족촌의 풍수적 입지에 있어, 이중환은 “경상도는 地理(풍수)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거나<sup>9)</sup>, 정약용도 “우리나라의 장원의 아름다움으로 는 영남이 제일”이라고 하였듯이<sup>10)</sup>, 영남지방의 지형 지세 조건은 卜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태백·소백산맥과 지리산·가야산 등이 서북쪽에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낙동강이 貫流하면서 그 상류와 中流域, 그리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지류와 산간계곡을 따라 재지사족들의 集居村과 농장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위치에 개설된 농장은 여러 선진농법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데다가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이용

하여 관개할 수 있어 부해가 적고 또 河床이 낮아서 홍수와 같은 수해가 적었다(이수건, 1995, 68).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다산 정약용은 영남지역에 향촌의 성씨집단이 가장 성하다고 하며 사족촌의 사례를 들어 “도산(陶山, 李退溪), 하회(河洄, 柳西崖), 내앞(川前, 金鶴峰), 닭실(鷄谷, 權冲齋), 호평(虎坪, 金開岳), 오미(五峯, 金鶴沙), 학정(鶴亭, 金柏巖), 갈산(葛山, 李存齋), 소호(蘇湖, 李大山), 돌밭(石田, 李石田), 옥산(玉山, 李晦齋), 옥산(玉山, 張旅軒), 우산(愚山, 鄭愚伏), 해평(海平, 崔詡齋)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다.<sup>11)</sup>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조선 후기의 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세력화 과정에서 풍수를 향촌의 지배를 위한 공간적 이데올로기와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사족층은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상층 양반문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다른 계층과 차별성을 지니는 한편 다른 계층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위를 유지해 가고 있었다(김준형, 2000, 109). 지역적 기반이 있었던 土姓들이 성장하여 土族化해서 동족촌의 기반을 형성하거나, 외래 사족들이 입향하여 동족촌을 형성할 때에 새로 마을의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점된 촌락지의 풍수적 가치, 입향조의 사당과 묘, 재실, 종가 등 종족 경관의 주요 장소가 갖는 풍수적 평가 등은 사족 집단의 지위와 권위를 사회적으로 표상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는 신분제적 질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담론에 있어 한 영향력 있는 문화 요소였던 풍수는 하위 신분계층의 이념적 지배를 위한 정치사회적인 공간 이데올로기로 활용된 것이다. 사족들의 근거지가 되는 촌락 터전의 풍수적 가치는 종족집단의 번영과 인물의 번성을 보장할 가능성으로 상징화되어 받아들여졌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풍수는 종족집단의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담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사족층으로 지칭되는 종족집단의 지배세력은 풍수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함으로써 장소와 경관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높이고 영역화를 강화하며 장소를 통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약용은 당시 향촌 성씨집단의 세력에 관해, “그들의 풍속은 집마다 각각 한 조상을 받들

고 한 莊園을 차지하며 동쪽끼리 같이 살면서 흠어져 거처하지 않기 때문에 굳건히 유지하여 근본이 뽑히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2)</sup>

전술한 사족촌 형성의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사족촌에 미친 풍수담론요소의 기능적 영향을 시기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이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족들의 卜居 과정에 풍수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커졌다. 16, 17세기 이후의 집촌화와 친족결속을 통한 사족촌의 형성 과정에서 풍수는 촌락의 공간조직과 종가 등 주요 건축물 배치와 입향조 묘지의 선정, 林藪의 조성관리 등에 반영되어 향촌사회에서 사족촌의 장소적 권위를 강화하는 담론으로 활용되었으며, 향촌사회에서의 경제적 세력화를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憤山 확보 등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이후로 사족 세력들 간, 혹은 동족의 분파 간에 주도권 문제가 노정되면서 분파의 해당 근거지와 중심장소(宗宅 등)의 풍수적 가치를 우열화하는 사족 세력 혹은 지파 간의 풍수담론 경쟁은 더욱 치성해졌다.

사족촌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 조영은 촌락의 발생 과정 및 사족의 출신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발생 과정에서 처음부터 풍수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設村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족들이 유력한 씨족으로 성장, 번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풍수담론이 성행하면서 비보물 설치와 상징화 등으로 풍수적 의미를 부가하는 경우와 풍수적 吉地로 촌락을 이동시킨 경우가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묘지풍수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음택풍수의 吉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족촌이 형성되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sup>13)</sup> 사족의 출신지 및 출신 배경과 관련시켜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조선시기 이전에 지역 기반이 있었던 재지 土姓들이 성장하여 土族化해서 동족촌의 기반을 형성하고 읍치 외곽에 풍수적 適地를 선택하여 轉居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낙향한 입향조가 풍수적 適地를 선택하거나 관에서 토지를 받아 은퇴 定住하면서 유력 씨족으로 번성하는 경우가 있는데<sup>14)</sup> 이때는 墳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묘지 선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래 사족들이 입향하여 번성·성장하면서 새롭게 卜居하거나 주거지를 이동하

며 비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사족촌의 풍수적 입지와 경관을 형성·구비한 경우가 있다.

### 3. 사족층의 향촌 지배와 풍수담론

조선 후기에 사족들은 종족집단의 향촌사회 세력화와 지배를 위해 풍수담론을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활용하였을까? 사립들은 훈구세력과는 달리 향촌사회에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재지사족으로서의 신분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향촌 지배였다(정진영, 1985, 52). 조선 후기에 사족층이 지녔던 종족터전의 변영과 인물 번성이라는 담론 하에서 향촌 지배를 위한 풍수적 방식은, 풍수적 입지국면의 규정과 상징경관의 구성을 통한 사족촌의 풍수적 권위 강화, 풍수비보물의 관리를 지정한 洞約, 墳山 확보를 통한 산림의 사유화 등이 있다. 언급한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족촌에 대한 풍수적 국면 설정으로 말미암아 공간적 영역은 향촌사회에서 차별적으로 상징화되고 풍수적 가치가 우열화되었다. 그리고 사족촌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입향조의 묘, 院祠·齋室, 종택 등의 건축물들은 하층민이나 다른 성씨에 대한 그들 가문의 위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기에(오영교, 2004, 42), 풍수는 사족층들에 의해서 이들 동족촌의 상징경관에 장소적 권위를 부여하여 종족의 위세를 높이는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사족촌의 주요 상징적 경관 요소들은 풍수적인 요처에 입지·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족들의 촌락민 지배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洞契·洞約類가 있었는데(이수건 등, 1994, 105), 풍수 비보물도 洞約의 대상이 되었다. 안동 의성김씨 내앞마을의 개호송은 그 대표적인 일례가 된다. 내앞 마을에 입향조 金萬謹은 풍수적인 수구비보를 하여 가문의 흥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숲(개호송)을 조성하였는데, 이후 이 숲이 불타고 홍수에 쓸려 없어지자, 1615년경 靑溪의 손자인 金滙이 주창하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천여주를 다시 심고 「開湖種松禁護議序」를 만들어 수호를 결의하였다(김덕현, 1986, 29-45). 숲이 당초 조성될 때에는 풍치와 생태적 역할을 배경으로 하

고 풍수적 비보라는 명시적 의미가 중심이 되었지만, 점차 가문과 지역과 같은 유교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기호 경관으로 인식되었다. 유교적 가치관이 고을과 마을에 정착되는 조선 중기 이후 유교적 공동체의 융성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비보 입수라는 기표에 담겨져 입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기호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김덕현, 2009, 53,57).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마을숲에 대한 인식은 사족들에게 있어 풍수와 유교가 결합한 담론의 모습과 방식을 여실히 나타내어 준다.

선조 通禮公(金萬謹)부터 터전을 연 이래, 이 숲을 심어 水口가 허한 점을 보완하였다. ... 이 숲이 없어지면 곧 내앞 마을이 없어지는 것을 분명하다. 내앞은 곧 우리 종가사당이 있는 곳이다. 가문의 터전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조상을 존중하는 의리가 있다면, 또 어찌 이 숲을 보호하는 데 마음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런바 마음을 하나로 협력하여 각자 노력하는 데 있어, 또 어찌 멀고 가까운 구별이 있겠느냐.<sup>15)</sup>

조선 후기 사족층에게 풍수적인 장소의 정치화 부추긴 것은 사족층 사회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사족 간, 동족마을 구성원에서 서로 다른 성씨 간, 동성의 지파 간에서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니 조선 후기 山訟과 토지 분쟁에 관한 무수한 所志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영교, 2004, 42). 특히 16세기 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지개간과 水田의 확대 등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山林水澤은 재산과 이권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것에 대한 私占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권과 사용권을 둘러싸고 가문 간, 또는 촌락 상호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었다. 사유화에 더욱 적극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산림이었다. 산림을 사유화해 간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가 조상의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었고, 풍수는 법제적으로 좌청룡·우백호의 局內的 묘역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이수건 외, 1994, 110-111). 墳山의 경쟁적 확보는 山訟을 유발하였으며, 산송의 전개과정에

서 풍수설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도용, 1990, 321). 그러나 정작 산림과 산지 이용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려는 추동력은 입산물이 당시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유통을 통하여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양반들은 풍수설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묘지주변의 광범한 산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양반들의 산림 私占이 확대되자 국가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규정을 법제적으로 명문화하여 양반들의 산림 독점을 인정하고 법적인 보장까지 하게 되었다(김선경, 1993, 532-533). 풍수상 분묘 영역의 '四山'(청룡·백호·주작·현무) 안에 入葬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풍조가 있었고, 四山 중에서도 청룡과 백호를 중시하였다(전경목, 1997, 10). 이에 속종은 동왕 2년(1676)에 敕을 내려 산송의 판결기준으로 삼았으며, 『續大典』(1746)에 명문화하였던 것이다.<sup>16)</sup>

조선 후기 사족촌의 풍수담론 형태는 사족 간 뿐만 아니라 동일 마을 내의 異姓 집단과 同姓 집단의 지파 간에도 경관을 통해서 반영되어 나타났다(권선정, 2003, 168). 안동의 하회마을에 전해지는 풍수담론에는 이성집단과 동족집단 지파 간에 세력 구축의 과정에서 풍수가 어떻게 지배세력을 합리화하는 상징적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는지 흥미롭게 드러난다. 하회마을에는 최초 許氏와 安氏가 살았고 나중에 柳氏가 세거하여 주도적인 성씨 집단의 세력을 확보한 동성촌이 되었다. 이성 성씨 간에 빚어진 촌락의 주도권에 관한 사회적 집단 관계는 마을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하여 담론으로 형성되었는데, 許氏와 安氏는 마을의 풍수적 형국이 行舟形임을 모르고 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하였고, 柳氏는 연화부수형의 연꽃의 중심에 입지를 정함으로 하여 운이 왕성하였다<sup>17)</sup>는 설화가 향촌사회 내에 유포된 것이다. 그리고 동족 지파 간의 풍수담론은 각 지파의 주요 건축물(派宗宅 등)의 풍수적 의미와 관련한 담론으로 나타났다(권선정, 2003, 172-173). 柳氏가 17세기 이후로 하회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파가 형성되자 각 지파 간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豊山柳氏의 謙菴 柳雲龍派와 西厓 柳成龍派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등 의식이 있었으며(김

택규, 1979, 62-64), 이것은 풍수와 관련된 담론의 형성을 통해 발현되었다. 이러한 支派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하는 대립이나 경쟁 등은 각 지파와 관련된 경관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또한, 그러한 경관의 의미구성을 위한 담론의 생산으로 나타난다. 養眞堂과 忠孝堂 각 종택의 명당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謙菴派의 중심인 養眞堂이 西厓派의 상징적 중심인 忠孝堂과 풍수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혈연적으로 대종가라는 謙菴派의 상징적 우월감과 역사적·경제적·수적으로 위세를 유지해 온 西厓派의 우월감이 그물망처럼 얽혀서 형성된 두 파간의 대립이 경관의 의미구성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선정, 2003, 167-169).

#### 4. 요약과 맺음말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불교와 풍수도참의 결합 형태로서 寺塔裨補說과 地理延基說의 풍수담론이 막을 내리자,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와 풍수의 결합 형태로서 사족촌의 풍수담론과 묘지풍수 담론이 활발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영남지방의 향촌사회에는 사족층 사회집단의 세력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종족터전의 번영과 인물의 번성이라는 유교적 촌락풍수담론이 성행하였다.

풍수담론이 향촌사회에 직접적이고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족촌의 형성 과정과 궤를 같이 하였다. 조선 후기에 풍수설은 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사족들에 의해 종족터전의 번영과 인물 번성이라는 담론으로 수용되어 향촌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사족촌의 형성 과정을 유형화하면, 발생적으로 풍수론에 따라 設村한 경우, 나중에 풍수적 의미를 부가하거나 吉地로 촌락을 이동시킨 경우, 음택풍수의 吉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경우가 있다. 출신배경적으로 土姓들이 읍치 외곽에 풍수적 適地로 轉居한 경우, 중앙정계에서 낙향한 입향초가 풍수가 양호한 터를 선택하여 定住한 경우, 외래 사족들이 입향하여 吉地에 새롭게 卜居하거나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가 있다.

조선 후기에 풍수담론은 기능적으로 사족들의 근거지가 가진 장소 권위를 강화해주고 합리화해



주는 상징적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사족층의 향촌 사회 세력화와 지배를 위한 풍수적 방식은, 풍수적 입지국면의 지정과 경관 조성, 풍수비보물의 관리를 지정한 洞約, 墳山 확보를 통한 산림의 사유화 등이 있었다. 풍수는 사족들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세력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면서 향촌사회에서 풍수담론의 영향력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사족 세력들 간, 혹은 동족의 분과 간에 주도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풍수담론의 경쟁은 더욱 치성해졌다.

이 글은 영남지방에서 조선 후기 사족층의 전개와 관련한 풍수담론의 형성과 기능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풍수도 사족층들이 향촌사회의 세력화와 지배를 위한 수단 및 이데올로기로써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토론하였다. 문헌 연구로서 지닌 이 글의 한계는, 차후 영남지방 사족층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귀납적으로 논증하는 현장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주

- 1) 풍수를 사회적 관계가 반영된 구성물로 해석한 일련의 연구는 권선정에 의해 행해졌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연구물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 영역으로 풍수사상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의 지평을 넓혀 주고 있다. 근래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권선정, 2003, 風水의 社會的 構成에 기초한 景觀 및 場所 解釋,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권선정, 2003, 사회적 지위 상징으로서의 경관, 지리학연구, 37(2), 163-175.  
권선정, 2008, 경관을 통한 사회집단 간의 경쟁, 지리학연구, 42(4), 563-577.
- 2) 사족층은 사족에 의해 형성된 촌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사족층은 동족촌 혹은 동성촌, 반촌 등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만, 촌락의 구성주체로서의 사족이라는 역사적 사회집단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였다.
- 3)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 전반에 풍수적 패턴이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 풍수는 읍치의 입지 결정과 경관 구성 과정에서 짙은 여러 입지 요인 중의 하나로서 그 비중과 영향력은 역사적 시기와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석,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 대한지리학회지, 42(4)를 참고할 것.>
- 4) 村山智順 著·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684.
- 5) 『南冥集』 卷4, 行狀, 韓國文集叢刊 31, 546. “陰陽地理醫藥道流之言 無不涉其梗概”
- 6) 『寒岡言行錄』 卷2, 雜記. “先生於諸子百家及醫藥卜筮兵書風水之說, 無不歷略該通”
- 7) 『慶尙道邑誌』(韓國地理誌叢書, 邑誌1, 慶尙道 ①, 1982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善山府邑誌, 林藪.
- 8) 『旅軒先生續集』 卷4, 雜著, 議復立遮蔽文.
- 9) 『擇里志』 「八道總論」 慶尙道, 朝鮮光文會本(1912). “慶尙道地理最佳”
- 10)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文集 跋 擇里志跋. “國中莊野之美唯嶺南爲最”
- 11)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文集 跋 擇里志跋.
- 12)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文集 跋 擇里志跋.
- 13) 예컨대 산산김씨 김취문의 후손인 김상원은 조부의 묘소가 명당으로 알려지면서 상주목사가 빼앗으려 하자 묘소를 지키기 위하여 묘소 근처로 이주하였다고 한다(정치영, 2009, 84). 그밖에도 영남지역의 사례는 아니지만, 경기도 용인시 陽川許氏의 입향 동기는 풍수적 묘지 선정과 관련되어 촌락이 형성되었고(홍운희, 2003, 同族村의 形成과 空間의 構造--龍仁市 遠三面 孟里 一圓 事例 研究,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선조의 분묘를 지키기 위해 묘막을 짓고 살던 자손들이 번영하여 동족촌을 형성한 사례는 경기도 광주시 능성구씨 촌락(정부매·최기엽, 1994, 서울 근교 전통 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329-340),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남양 홍씨 동족사회집단의 지역화 과정, 지리학연구 10, 383-424).
- 14) 한 예로서 安東權氏 權權(1478~1548)의 가계는 안동읍내→上京從仕→松坡(안동부 서 15리)→道村(안동부 북 30리)→西谷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족세가 번창해 갔으며, 권벌은 43세 때 유곡(답살)에 복거하였는데(이수건, 1995, 76), 다음의 인용문에 사족층의 卜居 과정에서 西谷의 산수에 대한 풍수적 관점과 형세가 잘 표현되어 있다. “여러 산들이 서로 교차하고 에워싸는 것이 마치 옷깃을 여민 듯하다. 그 가운데에 너르고 평평하며 方正한 땅은 비옥하고 오곡이 생산되기에 알맞고 좌우로는 작은 시내가 있어 산을 에둘러 흘러나가고 골짜기의 입구에 이르러 모여서 물이 빠져 동구 밖으로 나간다. ... 참으로 은자가 머물만한 땅이다.”(『荷塘集』, 卷4, 西谷記).
- 15) 1757년(영조 33년) 開湖禁松完議. 김덕현의 논문(1986)에서 재인용.
- 16) 숙종은 동양 2년(1676)에 “雖無步數之人 墓山內龍虎內養山處 則勿許他人入葬 自龍虎以外 則雖或養山 勿許廣占”이라는 教를 내려 산송의 판결기준으로 삼았으며, 『續大典』(1746) 『刑典』, 淸吏조에는, “雖無步數之人 龍虎內養山勿許他人入葬 龍虎外則雖或養山勿許廣占 龍虎闊遠 或至五六百步 亦不可一准龍虎...”라고 명문화하였다.
- 17) 村山智順 著·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686.

문헌

慶尙道邑誌, 韓國地理誌叢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2)

南冥集, 曹植, 韓國文集總刊 31,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9)

山林經濟, 洪萬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1981)

與猶堂全書, 丁若鏞, 麗江出版社 影印本(1985)

旅軒先生續集, 張顯光, 國立中央圖書館 擇里志, 李重煥, 朝鮮光文會(1912)

寒岡言行錄, 李厚慶 等撰, 國立中央圖書館

荷塘集, 權斗寅, 民族文化推進黨

권선정, 2003, 사회적 지위 상징으로서의 경관, 지리학연구 37(2), 168-175.

권선정, 2003, 風水의 社會的 構成에 기초한 景觀 및 場所 解釋,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권선정, 2008, 경관을 통한 사회집단 간의 경쟁, 지리학연구, 42(4), 563-577.

김경숙, 2002, 18, 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산송, 한국학보 28(4), 59-102.

김덕현, 1986, 傳統村落의 洞藪에 관한 연구 -安東 내앞 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地理學論叢 13, 29-45.

김덕현, 2009, 고을 입수에서 읽는 풍수담론과 유교 이데올로기, Pungsu: Korean Geomancy in Cultural Ecology, 영문판 풍수단행본 워크샵 자료집, 51-70.

김도용, 1990, 조선 후기 산송연구, 고고역사학지 제5·6 합본, 307-322.

김선경, 1993, 朝鮮後期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497-535.

김준형, 2000, 조선 후기 단성 사족층 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김택규, 1979,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일조각, 서울.

오영교, 2004, 조선 후기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담론 201 6(2), 35-70.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서울.

이상태, 1987, 조선 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사학연

구 제39호, 203-256.

이수건·이수환·정진영·김용만, 1994, 조선 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민족문화논총 제15집, 59-150.

이수건,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서울.

이해준, 1993, 조선 후기 촌락구조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 261-281.

이 화, 2005, 조선조 풍수신앙 연구, 한국학술정보, 서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研究 18(1), 10. 5-31.

정부매·최기엽, 1994, 서울 근교 전통 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329-340.

정진영, 1985, 조선 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대구사학 27(1), 51-88.

정진영, 1995. 2, 조선 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발달, 역사비평 1995년 봄호(통권 30호) 336-343.

정치영, 2009, 선산김씨의 공간적 확대와 족세의 성장, 久庵 金就文과 善山金氏의 宗族활동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77-94.

최기엽, 1985.12, 남양홍씨 동족사회집단의 지역화 과정, 지리학연구, 제10집, 383-424.

최기엽, 1987, 조선시대 촌락의 지역적 성격, 地理學論叢 14.

최원석,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 분석과 경관유형, 대한지리학회지 42(4), 540-559.

최원석, 2009, 경남의 풍수, 경남문화연구 30, 41-76.

홍윤희, 2003, 同族村의 形成과 空間의 構造-- 龍仁市 遠三面 孟里 一圓 事例 研究,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서울(村山智順 著, 朝鮮의風水, 1931, 朝鮮總督府).

(접수: 2010.2.23, 수정: 2010.3.12, 채택: 2010.4.15)